

전북대, 인문·공학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쾌거

연구 경쟁력·차별성 등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전북대학교가 2017년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인문사회와 이공학 분야가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는 전국 대학 가운데서도 매우 드문 일로 연구 경쟁력과 차별성 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14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17년 인문사회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무형문화유산연구소(소장 한한희)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무형문화유산연구소는 2013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이어 두 번째 선정됐고 2015년 국내 학술단체로는 사상 최초로 유네스코 NGO에 선정된 이래 접경시를 맞았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교육부

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부설 연구소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해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대는 지난 5월 이공학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발표에서도 김대혁 교수(분자생물학과)가 이끄는 유전공학 연구소가 선정돼 정부로부터 50억여원을 지원받아 '국가 재난형 질병제어를 위한 신속·맞춤형 유전공학 기반 기술개발 및 활용 연구'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유전공학 기반 기술을 통한 국가 재난형 질병 제어 기술의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세계 수준의 국가 재난형 질병을 연구하는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인문사회 분야에서 선정된 무형문화유산연구소는 2013년 이 사업 선

정을 통해 7만여건의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를 구축, 전문 웹사이트 이차데이터를 운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연구소는 그간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에서도 최대 6년 간 최대 12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무형문화유산의 복합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방법론을 개발하고 학제 간 조사방법을 개발해 인문학과 IT의 융합적 분석 모델을 세워 궁극적으로 공학적 분석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미래지식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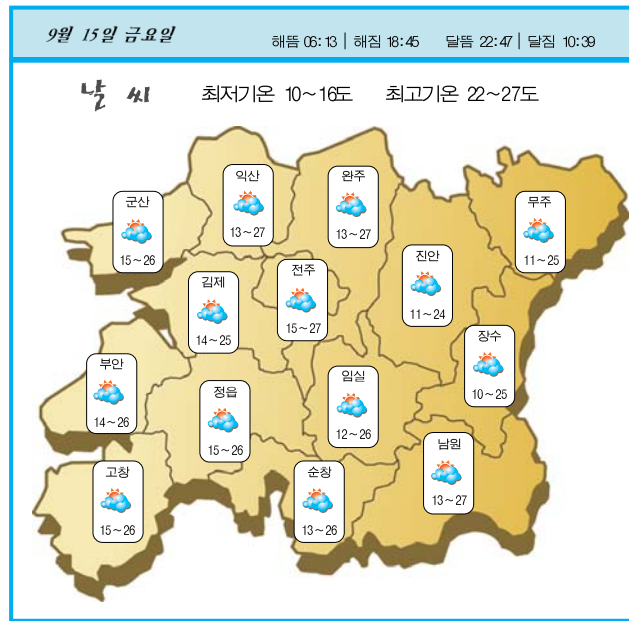
이를 위해 전문 주제와 항목 분류, 자료 유형별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고

공학과와 융·복합 연구를 통해 통계 분석과 시대적 추적, 지역에 따른 유형 분석, 화소 분석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ICH-Knet'라고 이름 붙인 미래지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ICH-Knet는 수집된 무형문화유산의 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지능형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다. 오픈소스 기반의 LAMP(리눅스 운영체제(Linux), 아파치웹서버, MySQL 데이터베이스, PHP, Perl 또는 Python)로 개발한다.

이 총장은 '인문사회와 이공학 분야의 연구소가 모두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된 것은 우리대학 전체의 연구 경쟁력을 정부에서도 인정한 결과'라며 "이 연구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지식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추진

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 오늘부터 28일까지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주시민의 주거실태와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조사하는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4일간 전문조사원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3000가구(주거취약계층 500가구 이상 포함)를 직접 방문해 가구특성과 주택유형, 가구의 주거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주거취약계층의 특성 등을 설문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인구 고령화와 가

구분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전세와 월세화 등 주택시장 변동(임차가구의 안정성), 원도심지역의 주택 노후화 문제 심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교육 등 주요 조사 항목을 고려해 조사표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된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치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는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해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전략과제 도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제시 등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 후 오는 11월 말 공표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이토티 질한 개선제 개발 협약 14일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천연물소재연구센터에서 수용성 복합체 기술을 이용해 이토티 질한 개선제를 개발·상용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전북대, 전문가 초청 인문학 특강 다채

오늘부터 매달 한 차례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전문가 초청 인문학 강좌를 다채롭게 마련했다.

전북대 인문역량강화사업추진단이 주최하고 전북대 박물관과 전라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특강은 15일 시작해 매달 한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병균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국사 각 시대별 인물 조명에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먼저 15일 오후 2시 박물관 2층 강당에서는 강종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신라 선덕여왕을 주제로 실재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한 10월 27일에는 김인호 광운대 교수가 고려 공민왕을 주제로 비운의 리더십을 이야기 한다.

이어 11월 22일에는 강문식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가 조선 세종의 리더십을 12월 15일에는 김문식 단국대 교수가 조선 정조의 리더십을 각각 강의한다.

김성규 전북대박물관장은 "이번 전문가 초청 인문학 특강은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한국사의 병균을 통해 리더십의 유형을 배우고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전북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총 모집인원은 유치원교사 20명, 초등학교 교사 60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4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21명 등 총 105명이다.

원서 접수는 25일부터 29일까지 5

일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제1차 시험은 11월 11일,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3~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2일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